

『이 중 하나는 거짓말』은 김애란 작가의 장편 소설로, 각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의 세 인물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점차 가까워지는 이야기이다. '채운'은 가정폭력을 하는 아버지를 찢러 어머니가 대신 감옥에 간 상황에 죄책감을 느끼며 반려견 멍치에 의지한다. '소리'는 자기 손으로 어머니를 포함한 주변인의 죽음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, '지우'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, 반려동물 용식을 '소리'에게 잠시 맡기고 떠난다.

이 책은 현실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을 묵직한 아픔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공감을 이끌고 인물과 반려동물 간의 서사를 통해 많은 반려인을 몰입하게 만든다. 그렇기에 나는 이 책을 자극적인 미디어 노출들로 인해 타인의 고통에 무뎠던 1~20대의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웠던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.

나는 이 책에서 두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. '이 세상에서 너랑 나랑 둘뿐이야.'와 '서로 시선이 꼭 만나지 않아도, 때론 전혀 의식 못 해도, 서로를 보는 눈빛이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고요히 거기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였다.'라는 문장이다.

첫 번째 문장은 '지우'와 '채운'이 자신들의 반려동물에게 하는 말로, 두 인물이 가정 내에서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.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는 모습을 보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것은 반려동물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. 이 책의 제목인 '이 중 하나는 거짓말'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, 세 인물은 상처를 받거나 주지 않기 위해 각자의 비밀을 가지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. 그러나 반려동물만큼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. 나 역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반려동물에게 말하는 것이 더 믿음이 가고 편하기 때문에 이 문장에 큰 공감이 갔다.

두 번째 문장은 '용식'에 대한 웹툰을 쓰는 '지우'만이 항상 '용식'을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'소리'가 '용식' 시점에서의 '지우'를 그리는 중에 한 생각이다. 만나지 않은 시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 온 나에게 서로를 보는 시선은 언제나 존재했을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문장이었다. 또, 책 내용과 관련하여 나는 이 문장을 통해서 '소리'가 '지우'를 바라보는 시선을 떠올리며 '용식'을 통해 얹힌 이 둘의 관계성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.

청소년기의 아이들이 가정 내의 불화와 그로 인한 외로움과 죄책감,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비밀로 인한 아픔을 다루는 책으로, 인물들이 놓인 다양한 상황에서 공감을 쏙 쏙 끌어낸다. 이 책을 읽은 이후, 나는 항상 헛갈리던 '공감'과 '연민'의 의미를 완전히 구분 지을 수 있게 되었다. '연민'은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마음이지만 '공감'은 내가 그 무엇에게 진정으로 몰입하고 대입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다. 나는 이 책에서 그 어느 인물에도 나를 대입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. '채운'의 입장이 되어, 자기 대신 교도소에 간 어머니에게 '가족과 잘 지내지 않아도 된다'는 말이 담긴 편지를 읽으며 울었고, '소리'가 되어 '용식'의 죽음을 '지우'에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아팠다. 이 책은 나에게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도 좋다는 메시지를 가져다주었다. 주변에서는 흔히 보기 어렵지만 누군가는 겪고 있을 비극과 아픔을 독자로부터 묵도하게 하고 이를 같이 아파하게 만들며 타인의 고통에 조금은 민감해지도록 한다. 이 책을 읽고 나는 소설이 주는 힘을 다시금 느꼈다.